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임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
평
자

나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애쓰는 입
장이다.

처음에는 쌉싸우듯 해서 먹이던 우유가 차츰
맛이 배어서 그런지 이제는 우유배달 시간이 늦
으면 성화를 덜 정도가 되었다.

내가 자라나던 어린 시절은 일본제국주의의 침
략전쟁, 6·25사변 등의 민족적 수난이 겹쳐서 우
유는 커녕 세배 배나 안끓고 지나면 다행이었다.

그래선지 우유를 마시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을 보면 펍 평화롭고 행복해 보인다.

콜라를 비롯한 다른 화학 음료를 마시는 것보
다 우유를 마시는 쪽이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드
는 것은 아마도 우유에는 이로움말고는 해로움
이 전혀 없다는 선입견 때문이리라.

그러니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나 어른들이 다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시절이 온다면 얼마나 풍요로워 보일까.

공해없는 환경이어야만이 소들이 좋은 풀을 먹
고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우유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러자면 자연히 우리들의 주변도 쾌적
하고 아름다워 지겠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
유와 부드러움이 생겨나리라.

이런 생각이 제발 한낱 헛된 공상이 아니었으
면 좋겠다.

너무도 작박하고 어려워 신경을 곤두세우고 누
군가가 금방 날 해치러 오는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월을 다시 밝히고
새롭게 하자면, 우리들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은 가장 <복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했다.

억압과 살육, 가난과 비참을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빼어내 하나님
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흐른다는 말(言語)가 내게 주는 느낌은 참으로

신비하다.

깨끗하고 맑은 우유가 시냇물처럼 절절 넘치며 우리들 앞을 흐른다.

욕심을 내어 쌓아둘 필요가 없다.

언제나 흐르고 있으니까, 마시고 싶을때 우리들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가까이 다가 가면 되니까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실 때 문득 못마실 형편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며 괴스러워지는 느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아빠가 캐나다 연합교회와 미국 장로교 연합회 초청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와서 거기 사람들은 우유를 항상 물처럼 마시더라는 얘기를 했다.

홍차에도 우유를 담뿍 넣어 마실 뿐만 아니라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유제품들을 마시고 먹는 것이 아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더라고 부러워 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유가, 그리고 유제품이 인체의 성장에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신생아(新生兒)는 생후 일년동안 신비로우리만큼 놀라운 발육을 한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간다. 이때 신생아는 모유가 아니면 우유를 꼭 먹게 마련이다.

이때에 특히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이 활발하게 자란다.

그다음에는 세포의 수효가 늘어나고 각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온다.

지능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 다음에는 늘어난 세포가 체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세포 하나 하나가 알차게 갖춰가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근육성장으로 남자는 남성다운 크고 썩썩한 몸매가 되고 여자는 여성다운 유연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된다.

그러므로 우유나 유제품의 생활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언젠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어느 바이올린니스트가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어린시절에 미국에 건너간 그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일은 도대체가 그쪽 아이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 없음을 느꼈을 때라는 것이었다.

서구나 미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열시간 이상을 연습에 바치고도 끄떡도 안하는데 이편은 두 세시간의 연습만으로도 녹초가 되어 꼼짝 못하겠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들려면 모름지기 먼저 우유부터 먹이라는 말을 했다.

아빠도 그런 고통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도대체 저네들이 만든 계획표대로 체력이 딸려 따라갈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네들이 성급하게 날뛰지 않고 패사를 여유있게 버티면서 기다리는 그 습성도 아마 우유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도 했다.

비행장에서 우체국에서 정류장에서 심지어는 음식점에서까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서 있는 저네들의 습성, 변덕이나 실증을 부리지 않고 역사의 내일을 기다리며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들의 습성이 우유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무리한 표현이었지만, 어쩐지 타당하게 들리기도 한다.

나는 바로 식생활개선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일에 벌써 십수년간 종사해 왔다.

그러면서 내가 맡은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주 실감해 왔다.

나는 여기서 우습고도 속상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그리 길지않은 기간이지만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로 식사를 해왔던 아빠가 집에 돌아와 다시 무겁고 자극성 많은 식사를 하게되자 배탈이 나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침식사는 우유와 빵으로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처럼 말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점심 도시락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하자면 아침에, 가뜰이나 출근시간에 쫓기면서 이층의 식사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나도 선뜻, 그렇게하자고 못나선 이유가 틈을 비집을 수 없을 만큼 조여 있는 아침시간에 또 하나의 일거리를 만든다는 일이 부담스러워하였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을 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마음먹고 있다.

우리의 식습관 속에 우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업이 위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낙농업이 위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겨를은 없다.

식습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어느때까지 쌀농사에만 매달려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부족한 쌀의 양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겠는가.

말해서 뭇하겠는가마는 어느 한부분의 개선일지라도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부분이 함께 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된다.

나무조각을 둘러서 조여 만든 물통처럼 그중 어느 한개가 계구실을 못하면 통으로서의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유의 효용을 몰라서 아직 우유를 상용하지 않는 이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온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웃음 속에서 우유 한잔을 나눠 마실 수 없는 경제적인 제약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유가 꼭 필요한 식품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는 우리네의 실정으로 보아 치맛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재결 날이 쉬이 올 것이라는 전망은 결코 흐리지 않다.

가족이 있고 식탁이 있고 냉장고도 어느만큼은 갖추고 있다.

우리네의 실정에 맞는 가격으로 한 켈런짜리의 우유통이 손쉬운 방법으로 구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네 식습관도 차츰 변해지리라 믿는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산이 아름답고 시내가 깨끗하고 맑아 그리고 <젓과 꿀>이 흘러내리는 꿈이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아이들과 어른들, 그 모두가 정결한 그릇을 들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날에 충족하리만큼 먹고 마신다.

일찌기 가난에 찌들고 외적들의 등쌀에 편안할 날이 없던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축복이 이제 그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도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고 힘쓰면 결코 <한갓 헛된 꿈>으로만 끝나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